

**입당송** |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 2열왕 4,42-44

**화답송** | 시편 145(144),10-11,15-16,17-18(◎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

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 에페 4,1-6

**복음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요한 6,1-15

**영성체송** |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이광휘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 |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코로나 초기에 우리 이주민들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웠고 위원회에는 함께 나눌 방역 물품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때 교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방역 물품과 생필품을 ‘나눔’ 해주셨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 시기에 교구를 비롯한 많은 사회복지 시설에 오히려 기부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힘겨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빵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제1독서에서 엘리사 예언자는 만물로 만든 보리 빵 스무 개로 백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남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배불리 먹으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주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루카 7,16)

복음의 기적 이야기로 돌아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따라왔던 군중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왔을까요? 우리는 여행 갈 때 도시락, 음료수, 과자와 같은 양식들을 챙겨갑니다. 아마 그 옛날의 군중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것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하면 오직 아이 한 명만이 자신이 가진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았다고 복음은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나눔과 헌신에 감동한 군중들이 그제서야 자기 것을 타인과 나누려 하게 된 마음의 변화, 회심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랑의 나눔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에 ‘재화의 보편 목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사목헌장 69항)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한 편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며 음식을 버리고, 반대로 한 편에서는 기아에 굶주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입니다.”(에페 4,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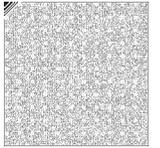
성모마리아방문봉쇄수녀회, 연천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요한 6,11)**

내내 닫혀있던 봉쇄 수녀원의 빗장이 잠시 열리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수녀님은 성체 앞에 한없이 깊은 절을 올리고 나서 두 손을 고이 모아 성체를 모십니다.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나누어 주셨던 그 빵은, 이제 그분의 몸이 되어 제 두 손 위에도 모셔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만찬의 시간입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류지현 안나  
아나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 |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일 때문에 타지에서 지내게 될 때에도 미사 드릴 성당을 꼭 찾아가는데, 어느 곳의 성당에 가든지 반드시 성모님을 찾아 잠시 머무르곤 합니다. ‘나에게 오라.’는 듯 펼친 성모님의 손을 살포시 잡을 때 찾아오는 평온함이 ‘지극한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게 하며, 늘 그 자리로 저를 부릅니다. 겸손하게 지극히 내려다보시는 성모님의 두 눈을 바라보고, 슬픔도 기쁨도 표현을 아끼듯 정제된 감정을 머금은 표정을 응시하며,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엔 애절한 외침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때론, 아들을 구세주로 내어놓고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모습을 찢어지는 가슴으로 품으셨을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저 또한 엄마가 되어서야 눈을 뜨며, 철없이 놓쳤을지 모를 저의 어머니의 마음 또한 짐작해 봅니다.

내일 7월 26일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성녀 안나 축일입니다. 제가 같은 본명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귀하게 얻은 딸을 주님께 내어놓은 남다른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날을 각별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동시에, 저 자신도 딸의 입장에서 저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두 어머니이자 모녀로서 성모님과 성녀 안나를 함께 묵상해 봅니다.

모성애의 본보기가 되는 두 분을 생각하니 여기엔 인내와 희생, 순명이 필요했음을 깨닫습니다. 안나 성녀는 결혼 후 20여 년 만에 귀하게 얻은 딸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약속을 지켰고, 어쩌면 평범한 삶을 순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수 있는 애뜻한 따님 성모 마리아는 나만의 아들일 수 없었던 예수님을 지켜보며 절절히 배어 있는 모성을 마음껏 터놓을 수 없었던 ‘인고의 어머니들’이셨

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 또한 각자의 방법으로 유사한 길을 걸어오셨기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부르기만 해도 마음 깊은 곳을 파스하게 어루만지는 사랑의 원천과 같이 여겨집니다.

얼마 전 어느 신부님 강론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울려왔습니다. “사랑은 나를 넘어서 당신이 지향하는 모든 것이니, 나의 사랑을 그들 앞에서 멈추지 말라.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 자신으로만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부르심이니, 나와 너를 함께 채우고 좁은 길과 같은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 성녀 안나와 성모 마리아 두 어머니의 마음과 교차됩니다.

그 모습을 닮으려 갈망하며 은총을 제가 느꼈듯이, 어려운 이 시기에 지극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리운 이들, 갈등과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 또한 치유 은총을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주님께 간구할 때 스스로 다짐하듯 되새기는 마르코 복음 5장 34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글  
이  
모  
는  
성경구절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과 병은 그날로 충분하다  
마르코 복음 6:34 해인

오현숙 베로니카  
홍은동성당

영화 '밤에 우리 영혼은'

# 그래, 함께 해요

2017년 감독 리테쉬 바트라

영화는 불쑥 이렇게 시작합니다. 5월의 어느 날 저녁, 미국 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웃해 살았지만 특별한 교류가 없는 이웃집 여자 에디(제인 폰다 분)가 찾아와서는 “기쁨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잘래요.”라고 제안합니다.

루이스(로버트 레드포드 분)는 당황합니다. 뜬금없고 황당한 데다, 아무리 70대 노인이지만 남녀가 ‘한집에 같이 잔다.’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지요. 그러나 에디가 바라는 것은 결혼도, 육체관계도 아닙니다. 외로운 밤을 견뎌내기 위해 누군가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고 싶은 것입니다. “밤이 가장 힘들잖아요.”

둘은 오래전에 각자 아내와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대충 저녁 식사를 하고, 신문의 낱말 퍼즐을 풀고, TV에서 일기예보나 보면서, 이따금 멀리 사는 아들이나 딸의 전화를 받고 잠자리에 들어 뒤척이곤 했습니다. “난 외로워요. 당신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에디가 대화 한번 제대로 나뉘본 적 없는데도 루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제안대로 <밤에 우리 영혼은>에서 루이스는 에디의 침대에 함께 누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잠을 자고는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 갖지 않기로 합니다. 너무 오래,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노년의 새로운 관계를 위한 그들의 용기와 도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코 별난 걱정이나 도발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스스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알고 봤더니 자신이 온통 말라죽은 것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각자가 쌓은 것들, 자기만의 삶과 연결된 것들은 좋은 싫든 그대로 두면서 ‘거짓’ 없는 대화를 통해 다름과 같음을 확인하고, 과장된 연민이나 공감 없이 위로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둘의 영혼은 따스한 위안과 평화, 기쁨으로 채워지고 윤기를 되찾습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디와 루이스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들을 안고 품고 있습니다. 에디에게는 교통사고로 딸을 잃으면서 아들, 남편과 단절되는 절망이 있었고, 루이스에게는 한때의 외도로 아내와 딸에게 갖게 된 죄책감과 꿈을 포기한 회한이 있습니다. 그 상처들을 나지막이 주고받는 그들은 아픈 티를 내지 않는데 정작 옆에서 그것을 보고 듣는 우리의 가슴이 아픕니다.

에디와 루이스는 물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편견과 장애물로 둘의 도전이 오래 지속될 수 없으리란 사실을. 딸과 아들의 노골적인 반감과

몰이해, 아들의 가정과 어린 손자를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상황 앞에서 여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는 곳이 아닌, 누군가와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새로운 관계와 시간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순간, ‘밤에 그들의 영혼’은 다시 쓸쓸해진다라는 사실을. 해마다 늘어나는 독거노인과 노인자살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높고, 혼자일수록 영혼은 더 방황하며,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 오늘(7월 25일)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매년 조부모와 노인의 역할을 제고하고 기억하는 등 교회적 노력을 이어가고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7월 넷째 주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8년 7월 29일 임화길 안드레아 신부(77세)
- 1990년 7월 30일 오기선 요셉 신부(83세)
- 2011년 7월 27일 김상우 프란치스코 신부(42세)
- 2019년 7월 29일 한정관 바오로 신부(76세)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습니다.

##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 | **백신 나눔 운동은?** | 교황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백신 보급을 지원하는 운동입니다.
- | **성금 액수는?** | 성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참여 기간은?**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2021년 11월 27일까지 '백신 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미음한몸운동본부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 교구정일림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집전: 양용석 신부(페루 선교)  
때, 곳: 8월5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 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7년 2월28일 이전 출생)  
원서접수: 9월10일(금)~14일(화) 인터넷 접수  
교리시험·면접: 11월5일(금) /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 용문청소년수련장 가족 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미사 및 프로그램 진행, 수영장 사용가능 / 문의: 031)774-6422  
때: 7월27일~8월29일(2박3일 / 총 7차수)  
접수: 용문청소년수련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마감 자세한 일정 및 문의는 용문청소년 수련장 홈페이지([www.yongmooncamp.or.kr](http://www.yongmooncamp.or.kr)) 참조

#### '임 가신 길, 임 따라 걷는 길' 도보 순례

때: 8월14일(토)·17일(화) 오전 9시부터  
코스: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우포도청 터~절두산순교성지) 도보 순례(하절기 대중교통 이용)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7월2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http://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02)2269-0413

####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하계휴관: 7월28일(수)~8월3일(화)

####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대상: 만 20세 이상, 가톨릭 신자(단,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수강 대상이 따로 제시될 수 있음)  
때: 7월~12월 /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온라인 화상 수업의 출결 확인을 위해 카메라 설치된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사용 필수)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mailto:tpc@seoul.catholic.kr))

#### 2022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 1월~6월: 8월27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추천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7월~12월: 2022년 1월~2월 중 추천예정 / 추천일정 별도 공지)

####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14시·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http://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1280차 미사(내미음의복된분당 갖기 미사)

때, 곳: 7월2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본당: 덕원자치수도원구 덕원 본당, 고원 본당 / 매주 봉헌되는 이 미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유튜브: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직원모집

#### 우리농본부(명동) 총무회계 직원 모집

회계관리(회계프로그램 운영협자), 후원회원, 총무관리 직원 모집 / 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1부(홈페이지 [www.wr.kr](http://www.wr.kr) 공지사항 양식 참조)  
7월26일(월)까지 이메일([woorinong@catholic.or.kr](mailto:woorinong@catholic.or.kr)) 접수

####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인원: 1명(1년 계약직, 평가 후 정규직 전환) / 분야: 회계·조직  
대상: 창조보전의식 투철한 분으로 컴퓨터(회계 프로그램·워드·엑셀·포토샵)가능한 분(회계 업무 경험자 우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7월28일(수)까지 문의 필수 / 문의: 02)727-2283, 2272

####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도림동)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분야: 시설관리 0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또는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mailto:aoinsa@seoul.catholic.kr)) 접수  
8월8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주부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부 인스타그램 QR



#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벗인 노인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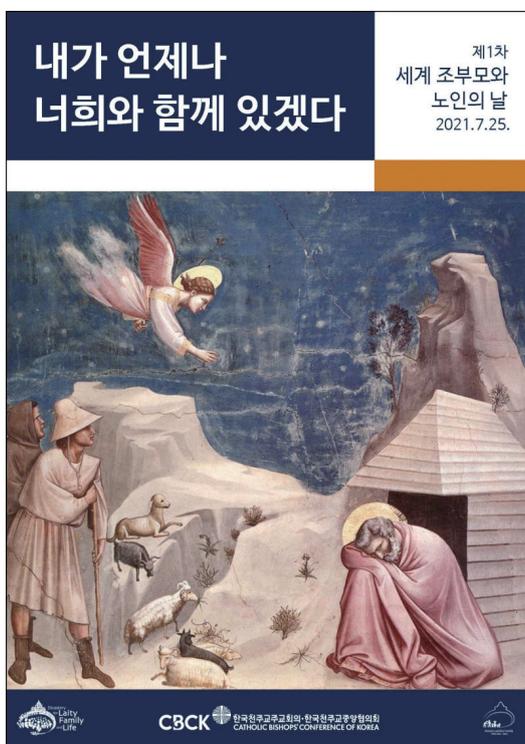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처럼 노인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병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시며,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노인이,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외로운 이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손주나 가족 가운데 한 사람, 오랜 벗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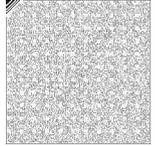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는 소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작은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

고 손주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전하는 일에 나이가 몇 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새로운 소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활동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성령께서는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 이루십니다.

현재의 위기는 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통하여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사회를 되살리고 지원하는 데에 적극 참여”(모든 형제들, 77항)하기 위해 세 가

지 기둥 - 꿈과 기억과 기도- 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의라는 우리의 꿈, 평화라는 우리의 꿈, 연대라는 우리의 꿈은 우리 젊은 이들이 새로운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것은 나이 든 모든 이의 참된 사명입니다. 삶의 토대인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그 기억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노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많은 이들의 노고보다 어찌면 더 통찰력 있게 세





상을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과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위로의 말을 모든 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다시 말해 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프란치스코

*Francisco*

### [교령]

#### 2021년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가칭) 전대사 교령

교황청 내사원은,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7월 넷째 주일로 제정하신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얼마 전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 장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의 청원을 들으신 교황 성하께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본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에 힘입어,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복돋우려는 목적에서, 2021년 7월 25일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바티칸 대성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거행이나 전 세계에서 거행되는 다양한

예식에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조부모, 노인, 모든 신자에게, 연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회의 천상 보화인 전대사를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너그럽이 수여한다.

이 자비의 법정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들)과 실제로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하여 만나 충분한 시간을 보낸 신자들에게도 같은 날에 전대사를 수여한다.

마찬가지로,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이가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예식이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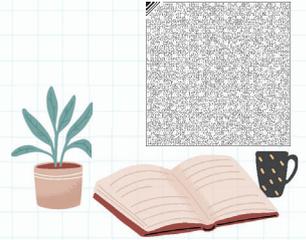
그러므로 본 내사원은, 교회의 묶고 푸는 권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용서에 다가가는 것이 목자의 사랑으로 더욱 쉬워지도록, 고백을 들을 적법한 특별 권한을 갖춘 사제들이 너그럽고 준비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거행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이 교령은 제1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유효하며,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내사원장 마우로 피우첸차 추기경  
부원장 크리스토프 니키엘 몬시뇰



# 고민도, 걱정도 푹푹 털어 내세요 휴가철 읽기 좋은 책



신간 도서

## 우리는 혼자입니다 (개정판)

당신의 삶에 온기가 되어 줄  
손희송 주교의 신앙 에세이

| 손희송 지음 | 15,000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가 25년간, 한 사제로서 살면서 느낀 고민과 감정을 신앙으로 녹여낸 책입니다. 인생의 가파른 오르막길을 홀로 거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통해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간 도서

## 성경 속 궁금증

성경을 읽다 보면 생기는  
모든 궁금증을 한 권에 담다!

| 허영엽 지음 | 16,000원

성경을 읽다 보면 생기는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고 보다 재미있게 알려 주는 책입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이자 홍보위원장 허영엽 신부가 95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들려주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성경이 새롭게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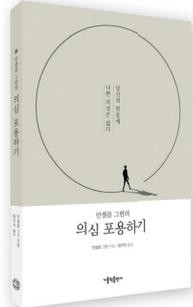
신간 도서

## 지친 하루의 깨달음

피로가 찾아오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 안셀름 그린 지음 | 13,000원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애써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로를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기회입니다. 가톨릭 대표 영성가인 안셀름 그린 신부가 초대하는 이 여정에서 피로를 풀고, 새로운 영성을 발견해 보세요.



신간 도서

## 의심 포용하기

의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신앙의 의미를 찾는 방법

| 안셀름 그린 지음 | 14,000원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 '의심'. 하지만 이 의심도 믿음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경, 신학, 철학, 심리학 등 여러 관점에서 '의심'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 책을 통해,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휴가철 추천도서

## 하느님도 쉬셨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 페터 아벨 지음 | 13,000원

마음의 고요를 방해하는 무기력함과 피로에서 벗어나 더 높이 날고 싶다면, 지금은 일단 잘 쉬 때입니다. 《하느님도 쉬셨습니다》는 나 자신도 몰랐던 소진 상태를 먼저 인식하게 해줌으로써, 내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휴가철 추천도서

## 쉽,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일상에 필요한 작은 심표,  
피정으로 찾는 신앙의 길

|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지음 | 13,000원

빠르게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때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책 속으로 작은 피정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이들을 위해 마르티니 추기경이 마련한 피정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잔한 평화를 느껴 보세요.